

동물보호
청소년
공모전

너의나의 생명공간

수상작
글모음



너의나의공감 생명

목 차

생각의 전환 / 정민진(17)	1 페이지
은비의 크리스마스 / 김서진(17)	4 페이지
3년의 시간 / 구진주(17)	9 페이지
변화와 채식 / 민서현(17)	14 페이지

동물보호 청소년 공모전

너의 생명 나의 공감

공모기간 | 2015.12.1. - 12.31

공모주제 | 동물보호, 생명사랑을 담은 작품

참가대상 | 생명감수성을 가진 12 - 18세 청소년 개인 또는 2인 팀

공모부문 | 글, 그림, 조각 등 창작물 /

사진, 영상 등 촬영편집물 / 소논문

[공존상]



생각의 전환

정민진(17)

학교 동아리 시간에 하게 된 해부 실험. 진로를 위해 잘 해야 된다고 여겼고, '이게 맞을까'라는 고민은 뒤로 한 채 해부를 재미로, 교육으로 생각했다. 그 후 한 기사를 읽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면서 나의 변화에 대해서 쓴 글이다.

나는 올해 고등학생이 되었다. 고등학교에서 하고 싶었던 활동들을 하면서 재미있게 지내려고 했다. 어렸을 때부터 동물, 식물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동아리는 과학 탐구부에 들어가게 되었다.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들어온 터라 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싶은 욕심으로 가득 찼었다. 과학 탐구부 안에서도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으로 나눠져서 나는 생명과학 조에 들어가게 되었다. 첫 활동으로 동물 해부를 계획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오로지 '재미있겠다!'라는 생각만 들었다. 초등학교 때 생명과학 수업을 들으며 돼지의 위, 죽은 닭 등등을 해부해 본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의 기억은 생명을 다루는 심오한 수업이 아닌 단순히 죽은 동물들의 몸속을 확인하는 '재미'밖에 없었다. 그렇게 그때를 생각하며 해부 실험을 하게 되었다. 해부 대상은 햄스터였다. 사실 작은 몸인데 우리가 뭔가 볼 수 있을까 걱정했었다. 선생님이 실험 준비를 하긴 했지만 선생님께 동의를 받은 건지, 햄스터는 작는데 인체를 공부하기에 좋은 건지……. 걱정이 많았다.

동아리 활동을 하는 날, 선배가 급하게 동물 가게에서 햄스터 3마

리를 데리고 왔다. 작고 귀여운 햄스터들이었다. 아직 다 크지 못해서 작은 내 주먹보다도 작았다. 그리곤 큰 걱정이 되었다. 나는 여태껏 살아있는 동물을 해부실험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선배들이 마취를 도와주고 난 ‘어차피 생명과학 전공하면 이런 거 자주 하겠지? 난 적성이 맞을 거야. 맞아야 해. 여기서 겁먹으면 안 되지.’ 하며 억지로 내게 잘 맞는척하며 해부를 시작했다. 초등학교 때는 죽은 동물이어도 해부 전에 항상 선생님과 기도를 했었다. 하지만 이번엔 아니었다. 모두들 신기하다는 눈빛으로 해부판 위에 올려진 햄스터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도 그들처럼 태연한 척 하며 해부를 했다. 몸속에 장기를 알아보면 반기고 꺼내서 보고 사진을 찍고 계속 불쌍한 햄스터 생각이 들면 ‘나에게 공부가 되고 있으니깐 관찮아’ 하며 스스로를 위안했다. 그렇게 걱정이 많았던 해부실험이 끝나고 ‘좋은 공부가 됐을 거야.’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리고 내 걱정과 불안함은 빨리 잊혀졌다.

그리고부터 몇 달 뒤 SNS로 한 기사를 접하게 되었다. 그 기사 내용은 초, 중, 고 학생들이 살아있는 동물을 해부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전문가들의 토론과 여론을 정리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대부분 반대 입장이었다. 그 의견을 들어보니 아직 생명 존중감을 알지 못하는 학생들이 동물해부를 하면서 무엇을 깨닫는지, 동물을 죽이는 죄책감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이다. 난 그때 머리를 크게 한 대 얻어맞는 기분이 들었다. 내가 그 햄스터를 해부할 때 아니 죽일 때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생각해보았다. 그때의 나는 딱히 충격도 없었고 그냥 ‘죽는구나’ 싶었다. 그리고 햄스터의 생명을 내 생명처럼 소중히 생각하지 못했었다. 그리고는 계속 죄책감이 들었다. 나는 계속 어떡해야할지 몰라 머리가 텅 빈 느낌이었다. 햄스터의 생명도 내 생명처럼 중요하고 아껴야 하는 것인데 우리가 교육을 목적으로 그렇게 함부로 해도 되는 것일까? 사실 해부 말고도 다양한 방법으로 신체를 알아볼 수 있는데 우리는 왜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했을까. 그게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으며 난 작은 생명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생명과학 전공 희망자가 되었다.

그 인터넷 기사는 내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었다. 특히 여론 조사한 내용 중에 학생들 중 약 60%가 해부가 필요하다고 나와 있다. 아마 기사를 접하기 전의 나도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기사의 의견대로 해부의 목적은 동물의 내부를 보는 것인데 이를 대체할 도구들이 굉장히 많다. 또한 해부를 하고 싶어 하는 이유는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재미있기 때문이다.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빨리 바로 잡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생명이란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것, 생명을 아끼고 사랑해야한다는 것 학생들이 항상 갖고 다니는 생각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그 뒤로 나는 해부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 ‘내가 사랑하는 동물들을 내가 이렇게 죽이고 있었구나.’ 크게 깨달으며 주변 친구들에게 내 생각을 전하고 내년에 우리 동아리에서는 동물 해부를 평생 금지 시킬 계획이다. 해부를 대체할 도구들을 찾아보던 중 동물보호시민단체인 KARA에서 도구를 무료로 대여해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우리 동아리에서 내년에 빌릴 계획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부를 대체 할 방법은 많다고 생각한다. 또 요즘은 발달된 미디어를 활용해서도 해부를 대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해부는 잔인한 동물학대와 비슷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해부를 통해서 교육적인 효과는 있지만 심리적으로, 윤리적으로 너무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 해부를 즐기려고 했던 초등학생의 나와 고등학생의 내가 해부 실험을 즐기는 척은 옳지 않고 원래 내가 가졌던 무섭고 이래도 될까하는 의심스러운 생각이 맞았다. 더 이상 해부 실험이 학교에서든 어디에서든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기사출처: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206547&plink=ORI&cooper=NAVER



[공감상]

은비의 크리스마스

김서진(17)

크리스마스 날, 주인에게 버림받은 고양이 은비 이야기를 고양이 입장에서 쓴 소설이다. 은비는 ‘카라’를 통해 행복해질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버림받은 고양이를 길렀던 나의 경험을 참고했다.

12월 25일. 길가엔 제 털만큼 하얀 눈이 수북이 쌓여있었고, 거리에는 크리스마스 캐럴이 밝게 울려 퍼졌어요. 나무에 달린 전구들은 동화 속의 별처럼 반짝였고, 다정하게 팔짱을 낀 연인들의 입에서는 하얀 입김이 흘러 나왔지요. 제 인생에서 첫 번째로 맞는 크리스마스 날, 저는 혼자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말이에요.

같은 자리를 몇 시간째 지키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털 속을 파고 들어가는 세찬 겨울바람이 알미워요. 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제 주인님을 찾으려고 애를 써보지만, 주인님의 발자국 소리조차 들리지 않네요. 하지만 주인님은 다시 제 곁으로 오실 거예요. 꼭 돌아오실 거예요.

“은비야, 맛있는 통조림 사 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서너 시간 전에, 주인님은 제 머리를 쓰다듬으시면서 분명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살짝 올라간 입술 끝이 왠지 모르게 어색해보였지만, 주인님은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이니까, 이제 곧 오실 거예요. 그렇겠죠?

눈이 어느새 발목까지 쌓였어요. 온몸을 흐르는 피가 전부 얼어붙는 기분이에요. 하지만 꼭 참고 주인님을 기다려야 해요.

저는 원래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걸 좋아하는데, 가만히 앉아있으려니까 너무 심심하네요. 머릿속에서 갖가지 생각들이 퐁퐁 솟아올라요. 포근한 털실뭉치, 잘생긴 옆집 고양이, 어저께 우리 집에 놀러온 주인님의 친구들..... 주인님과 친구들이 거실에서 차를 마실 때, 저는 소파에 나른하게 누워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꿈결에서 어렴풋이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었지요.

“야, 그런데 너 새로 이사 갈 곳에서 고양이 못 키우게 한다면? 그럼 네가 지금 키우고 있는 고양이는 어쩔 거야?”

“어찌긴 뭐 어찌. 고양이는 원래 아무데서나 잘 사는 동물이잖아. 밖으로 내보내야지. 그게 은비한테도 더 좋을 거야. 그리고 고양이 키우는 게 얼마나 귀찮은 일인데. 병원비도 많이 들고, 털도 많이 빠지고.”

그 땐 잠에 취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던 대화가, 이제는 뚜렷하게 생각이 나요. 주인님의 이야기를 찬찬히 곱씹어볼수록 자꾸만 눈물이 나와요. 마음 한구석에서 뜨겁고 슬픈 무엇인가가 치고 올라오는 것 같아요. 처마 끝 고드름처럼 차디차고 날카로운 현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이젠 인정해야 되겠죠. 주인님이, 저를 버렸다는 것을.

-고양이는 원래 아무데서나 잘 사는 동물이잖아. 밖으로 내보내야지.

주인님의 이 말만이 귓가에서 차갑게 맴돌아요. 고양이가 아무데서나 잘 산다고요? 그래서 저를 당신 곁에서 쫓아낸 건가요? 고양이는 따뜻한 곳을 좋아하는 동물이에요. 길고양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아마도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장소겠지요. 그래도 옛날에는 고양이들이 살 만한 곳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하실, 헛간, 낙엽 더미 등. 하지만 도시화가 진행된 지금엔 길고양이들이 살 곳이 별로 없다고요.

“저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노랗게 빛나는 달님을 향해 외쳤어요. 주인님의 미소처럼 밝고 아름다운 달님은 아무런 말도 해주지 않았어요.

“시끄러워! 어디서 고양이가 청승맞게 우는 거야?”

퍽. 배에 강한 통증이 느껴졌어요. 속이 뒤집어지는 것 같았지요. 지나가던 사람이 제 우는 소리를 듣고 저를 발로 걷어찬 거였어요. 저는 킁킁거리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쳤어요.

밤이 깊어질수록 눈은 점점 더 많이 쌓였어요. 저는 밤을 버텨낼 곳을 찾기 위해 쓸쓸한 도시 한복판을 헤맸어요.

과연 내가 두 번째 크리스마스를 맞을 수 있을까? 불안한 예감이 그림자처럼 달라붙었어요. 별마저도 보이지 않는 검은 밤하늘, 거대한 시계탑이 12시를 가리켰어요. 이렇게 첫 번째 크리스마스가 저물어가고 있었어요.

다시, 12월 25일.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눈이 내리지 않았어요. 하얗고 깨끗했던 제 털은 더러워진지 오래였어요. 딱딱한 길바닥에서 자는 것도 이전 익숙해졌어요. 발톱으로 쓰레기봉투를 찢고, 안에 들어있는 음식물들을 먹는 것도 지금은 괜찮아요. 처음 길거리 생활을 하게 되었을 때는,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발톱과 이빨이 날카롭지 않았던 저는 원래부터 길 생활을 하던 고양이들에게 자주 당했어요. 난폭한 길고양이들은 제가 발견한 잠자리를 가로채고, 제가 찾은 먹이를 뺏어먹었어요. 하지만 다행인 것은, 저를 위로해주고 도와주던 착한 길고양이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머루도 그 중 한 마리였지요. 머루가 누구냐고요? 지금 제 옆에 앉아서, 저랑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얼룩무늬 고양이 말이에요.

“있잖아, 은비야. 반려 고양이는 15년을 살 수 있대. 하지만 우리 길고양이는 보통 3년 밖에 살지 못해. 우리가 올해 겨울을 넘길 수 있을까?”

눈에 큰 흉터가 있는 머루가 저를 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일자로

보기 흉하게 그어진 흉터. 그것 때문인지, 사람들은 유난히 머루를 싫어하는 것 같았어요. 사실 그 상처도, 사람들이 던진 돌에 맞아서 생긴 건데도 말이죠. 저는 조용히 머루의 눈동자만 들여다보았어요. 눈동자 안에서, 저를 버린 주인님의 모습이 잠시 일렁였지요.

저는 아직도 주인님을 그리워하는데, 주인님은 이제 저를 잊었겠죠? 진득한 슬픔이 목구멍을 가득 메웠어요. 숨조차 제대로 쉬어지지 않을 만큼.

“왜..... 주인님은 나를 그렇게 쉽게 버렸을까? 내가 뭘 잘못을 했다고.”

굳어버린 혀를 힘겹게 움직여 머루에게 물었어요.

“너만 버려진 게 아니야. 2014년 한 해 버려진 고양이는 무려 20,966마리나 돼. 그 중 주인에게 돌아올 수 있었던 고양이는 겨우 1.4%에 불과했대.”

머루는 이 뒤로도 무어라 더 말하는 것 같았지만, 저는 머루의 말을 끝까지 들을 수 없었어요. 사실은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저기 멀리, 반대편 길가에서, 한 번도 잊지 않았던 그리운 모습이 보였으니까요. 주인님이었어요. 주인님이 보도블록 위에 서서, 신호등이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주인님!”

저는 생각할 여유도 없이 주인님을 만나러 도로 위로 뛰어들었어요. 땀, 자동차 경적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눈부신 헤드라이트가 저를 밝게 비추었어요. 순간 온몸이 굳어 움직일 수 없었어요. 광. 부딪히는 소리가 났고, 저는 낙엽이 나뒹굴 듯 아스팔트 위를 굴렀어요. 끈적끈적한 피가 도로를 서서히 물들였어요.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요. 저기 보이는 주인님을 만나러 가야 하는데. 발가락 하나 까닥할 수 없네요. ‘죽지 마, 우리가 널 도와줄게. 넌 살 수 있어.’ 어, 이상하다. 어디선가 봄별처럼 따스한 목소리가 들려와요. 주인님의 목소리는 아닌데..... 환청인 걸까요? 눈앞이 흐릿해져요. 아무것도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어

뚝이 서서히 제 몸을 덮어 와요. 그리고-

정신을 차린 곳은 동물병원이었어요. 네다섯 명 정도가 걱정스러운 눈길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성별도, 나이도 달랐지만, 사람들은 모두 'KARA'라고 써진 파란 조끼를 입고 있었어요.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보호'라는 단어가 아름답게 느껴졌어요. 저분들께서 이제부터, 저를 보호해주시려나 봐요.

“많이 힘들었지? 이젠 괜찮아. 우리가 너를 치료해줄게. 그리고 너를 진정으로 사랑해주는, 멋진 주인을 찾아줄게.”

꽃잎처럼 화사한 미소, 햇살처럼 부드러운 목소리. 두근두근. 심장이 설렘으로 뛰어요. 엄마의 품속 같은 포근함에 마음이 놓여요. 산타의 깜짝 선물을 받은 기분이에요. 이번 크리스마스는, 그리고 앞으로의 크리스마스 역시,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은 좋은 예감이 들어요.

한 달 후, 서울과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 서진이라는 학생이 온라인으로 입양할 고양이를 찾아보고 있었어요. 흰 털이 고운 '은비'라는 고양이가 눈에 띄었지요. 입속으로 작게 은비의 이름을 부르자, 잔잔한 은방울꽃 향기가 났어요. 왠지는 모르겠지만 은비랑은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달걀. '입양하기'를 누르는 손가락이 기쁨으로 작게 떨렸어요.

[돌봄상]



3년의 시간

구진주(17)

길에서 구조한 새끼 강아지 '치즈' 가족 만들기
프로젝트, 길고양이에 대한 대우 개선을 위해 참여한
정책 대회 등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고등학생이 된
지금까지 3년 동안 한 일을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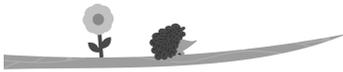
제가 길고양이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것은 3년 전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사회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이 선생님은 제가 아는 어떠한 사람보다도 고양이를 좋아하였고 집에는 18살인된 고양이 '리오'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고 종종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자랑을 하였습니다. 리오와 함께 살면서 행복해하시는 선생님을 보면서 저 또한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학생이라는 점과 저와 함께 살게 될 반려동물이 제가 외출하는 시간동안 외로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가족을 들이는 마음을 접었지만 한편으로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알았는지 사회 선생님께서 저에게 한 단체를 알려주셨습니다. 규모가 작은 동물쉼터였습니다. 사회선생님께서 그곳에다가 각종 사료나 보호를 받고 있는 동물이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담요 등을 가지고 종종 들린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선생님께 데려가 달라고 부탁하였고 동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물쉼터라 하여 꽤 멀리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였지만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가깝다고 한다면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또한 내부도 TV에서 보는 철창에 동물들이

간혀있는 것이 아닌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서로 놀고 있어 행복해보였습니다. 쉼터에는 강아지보다는 고양이가 더욱 많았고 고양이라고 하면 낯선 사람을 경계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고양이들은 사람을 좋아하는지 처음 보는 저를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기도 하였고 제 무릎위에 식빵자세로 앉아 자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저를 지켜보고 계시던 동물쉼터 선생님께서 저에게 앞으로 오려면 그저 놀러오 오는 것이 아닌 봉사할 마음으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집에 가는 길에 내가 고양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지에 대해 생각을 해보았지만 선뜻 대답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저는 학교가 끝나고 바로 동물쉼터로 갔습니다. 고양이 화장실을 치우고 밥그릇을 씻고 청소를 하는 도중 어제 찾지 못했던 답을 찾았습니다. 제가 생각한 답은 여기에 있는 고양이들이 자신을 사랑해줄 가족을 만나기 전까지 이곳에 있으면서 즐겁게 생활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거의 매일 동물쉼터에 방문하였고 쉼터에 있는 고양이들 이름을 다 외우고 친해지는 재미로 하루를 그렇게 보냈습니다. 제가 고양이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한 때 그냥 지나쳐갔던 길고양이들이 눈에 들어왔다. 학교와 집을 통학을 하면서 본 길고양이들이 배를 굶아 음식물쓰레기를 먹는 모습이 눈에 밟혔습니다. 쉼터선생님께 그것을 말하니 선생님께서 저에게 고양이 사료를 주셨습니다. 길고양이들에게 먹이라고 주셨는데 양도 많고 가격도 다른 사료들 보다는 저렴해서 앞으로 길고양이들에게 주기 좋은 사료라고 소개해주셨다. 또 한 번 길고양이들에게 밥을 주게 되면 길고양이들은 야생성을 잃게 되고 제가 밥을 주지 않으면 야생성을 잃은 길고양이들은 결국 굶어 죽을 수 있으니 책임감을 가지고 주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길고양이들이 안전하게 밥을 먹을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하던 도중 한 경찰아저씨가 자신의 자가용이 있는데 그 차는 이용하지 않으니 그곳에다가 주라고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매일 학교가 끝나고 오후5시쯤에 밥을 두고 오후7시에 밥그릇을 회수하러 다니니

밥을 먹고 가는 고양이들을 종종 마주쳤습니다. 하루는 밥을 주려고 가니 자동차 아래에서 4마리가 식빵자세로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 장면을 찍었고 집에서 그 사진을 보면서 행복해하였습니다. 어느덧 제가 밥을 주는 곳에는 16마리에 고양이가 오게 되었고 제 핸드폰에 고양이 사진도 4000장이 넘어갔습니다. 길고양이 사료를 사면서 고양이 카페에 대해 알게 되었고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블로그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글을 보면서 나도 블로그를 한번 해볼까? 생각하였고 블로그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글을 쓸 때는 보는 사람이 적었지만 매일 글을 올리다보니 방문자 수도 늘었습니다. 방문자 수가 늘어난 만큼 블로그 사진을 보고 길고양이들에게 해코지하는 사람이 없게 위치를 알 수 없게끔 하였습니다. 글을 보고 몇몇 사람들이 메일이나 쪽지로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방법이나 이웃주민들과 마찰이 생길 때 대처 방법들을 물어보는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최대한 만족스러운 답변을 보냈습니다. 중학교 3학년 겨울쯤에 공문 하나가 학교 게시판에 붙었습니다. OO구에서 불편한 점이나 개선할 점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적는 청소년 정치대회였습니다. 저는 친구3명이 모여서 팀을 이루었습니다. 저희 팀은 길고양이에 관한 법을 조사하고 길고양이들을 해친 사례 등을 소개 하였습니다. 또 그것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TNR 사업에 대한 의의와 효과 등을 설명해 주민들에게 다짐을 받는 것을 정책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길고양이와 유기동물이 유해동물이 아닌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생태계의 일원으로 생명존중강의를 하게 해줄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유기동물과 길고양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점을 높게 사서 나중에 동물에 관한 정책을 정할 때 참고하시겠다고 하셔서 팀들끼리 영광을 한 것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 하루는 길고양이들에게 밥을 주러 가는 길이었습니니다. 그 날은 눈도 내리고 있어 보통 날씨 보다 더욱 추워 어깨를 움츠리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골목길을 지나던 도중 어디선가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까이가보니 한 새끼강아지가 하수구 위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어미가 나중에 찾지 않을까 생각해 지나쳐갔습니다. 불일을 다보고 다시 그 길로 돌아가고 있는데 아직 그 강아지가 눈을 맞으면서 떨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하다가는 새끼강아지가 죽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집에 들려 담요를 가지고 새끼강아지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때 저는 친구와 함께 있었는데 그 친구가 자신이 임보(임시보호)를 맡겠다고 하였고 그 집으로 갔습니다. 강아지는 움직임이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몸이 따뜻해지자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일주일이나 지나니 사람을 보면 짖기도 하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활발히 움직였습니다. 강아지에 털빛에서 따와 ‘치즈’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동물병원에 갔습니다. 수의사선생님께서 강아지는 아주 건강하다고 하였고 저와 친구는 인터넷카페에다가 치즈에 가족이 되어달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지만 제 욕심에 치즈에게 조금 더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고 싶어서 적합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학교에서 입양 글을 읽어보던 중 반 친구가 저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자신이 치즈의 가족이 되고 싶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 친구 자체만 보서는 착하고 따뜻한 친구였기 때문에 찬성이었지만 학생이 반려동물을 들이면 성인이 될 때까지 경제적 지원은 부모님이 담당하게 될 터이니 부모님 허락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친구에게 부모님의 허락을 말아야 한다고 말을 하였고 친구는 전화를 걸어 부모님에게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 그 날 밤 친구는 치즈를 위한 용품이나 장난감등을 구매했다고 사진을 찍어서 저에게 보내왔습니다. 이 집이라면 치즈가 행복해 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그 집으로 치즈를 보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치즈와 함께 사진을 찍어서 보내왔고 행복하게 살고 있어서 저 또한 안심하고 마음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고 나서는 중학교 때보다 시간이 많이 부족하였다. 길고양이들에게 밥을 주는 것은 꾸준히 계속하고 있었지만 블로그나 카페에 글을 올리는 시간은 도저히 불가능하였습니다. 할 수 없이 블로그와 카페에서 활동하는 것을 포기하였습

니다. 핸드폰에 길고양이 사진과 쉼터 고양이 사진이 10000장이 넘어 갔고 제 핸드폰을 구경한 친구들이 길고양이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 친구는 자신도 의미 있는 행동을 하고 싶다고 고양이 사료를 구입을 하여 길고양이들에게 밥을 주는 일을 시작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지금은 3~4명이 돈을 모아서 길고양이 밥을 사서 나눠주고 다녔습니다. 저희에 행동을 본 몇몇 사람들은 아직 불쌍한 사람들이 많은데 길고양이 따위한테 신경을 쓸 겨를이 어디 있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람들만 살아가는 세상이 아닌 모두가 모여 함께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길고양이나 유기동물들이 해를 끼치는 동물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아닌 지구에서 살아가는 하나의 생태계의 일원으로 생각하게 될 때가 올 때까지 노력을 할 것입니다.



[희망상]

변화와 채식

민서현(17)

5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나의 일부였던 채식주의가 변화하는 나의 모습을 따라 어떻게 바뀌어 갔는지를 담은 경험담 형식의 수필이다.

1년 반, 대략 500일을 넘어가는 시간동안 내게는 참 많은 변화들이 있었다. 2015년은 특히 날마다 새로운 한 해였다. 처음으로 시작한 기숙사 생활, 처음으로 가본 혼자만의 여행, 처음으로 직접 마주한 대한민국의 실태, 처음으로 몰래 직거래한 중고 헤드폰. 그리고 처음으로 진지하게 마주한 나의 변화와 채식까지.

2014년 6월 18일은 나에게 꽤나 역사적인 날이다. 때는 평소와 같이 자유시간이나 다름없는 학교 봉사시간이었다. 주제는 ‘환경 보호’였고, 이런 시간에 흔히 보여주는 지식채널e 영상이 틀어져 나왔고, 난 영혼 없는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다 지금 생각해보면 신기할 정도로 너무도 우연하게, 두 영상에 나의 시선이 쏠렸다. 북태평양의 작은 섬인 투발루는 기후 변화로 인하여 가라앉고, 그 곳 주민들은 누구도 반기지 않는 기후 난민이 돼있었다. 바로 다음으로 나온 영상은 햄버거 속 소고기와 기후 변화가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다. 사실 이 두 영상은 꽤 유명한 교육용 동영상으로 나

도 전에 이미 여러 차례 봤었다. 그러나 그날, 어디서 밥을 잘못 먹었으나보다. 나는 비장한 마음으로 다짐했다. 채식을 하겠노라고.

영상 속 주민들의 인터뷰의 배경이 된 노래 “Over the Rainbow”가 머릿속에서 울리는 가운데, 그날 저녁부터 고기를 먹지 않기 시작했다. 물론 이런 결심이 갑자기 튀어 나올리는 없다. 뜬금없이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데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는데,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아버지의 채식결정이었을 것이다. 딱 그 즈음, 아버지는 더 이상 고기를 드시지 않으시기로 결심하셨다. 그리고 나름대로 그 이유를 설명해주셨으나, 사실 나는 막연하게 ‘채식이 좋은 것 같긴 한데 나중에 한 서른 살 즈음부터 해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뿐이었다. 고기는, 그것이 만들어 지는 과정과는 관계없이 맛있고, 단백질을 공급해주는 필수품이었다. 그런데 6월 18일, 정신이 갑자기 이상해졌는지 나도 모르겠지만 채식주의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물론 내가 특별히 좋아하는 물고기와 우유, 계란 등은 예외로 하고.

사실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은 나에게겐 심한 고통은 아니었다. 원래부터 육류 섭취를 즐기는 집도 아니었고, 나도 딱히 먼저 찾아서 먹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한 달 간 나의 붉은 고기를 금하는 채식은 이어졌다. 그 사이에 난 책을 몇 권 읽었다. 주 내용은 공장식 축산업과 수산업이 얼마나 동물권을 처절하게 짓밟고, 환경을 파괴시키고 생태계를 붕괴하며, 이 업종에서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열악한 환경에 대한 것이었다. 대략 한 달이 지난 7월 14일, 나는 물고기를 먹는 것을 멈추었다. 책을 읽다보니 수산업도 축산업과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대체로 소, 닭, 돼지 같은 육상 동물들에 대해서는 그나마 관심을 가져도, 소리도 잘 안내고 생긴 것도 너무나 다른 물고기, 새우등의 수상 생물을 죽이는 데에는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않는다. 게다가 ‘트롤망으로 바다를 무차별하게 긁어모아 대다수의 해양 생물들을 죽인 채로 다시 던져버린다’고? 소위 말하는 ‘락토-오보’ 채식을 그렇게 시작했다.

학교에서 식판에 담기는 음식들을 바꾸었다. 이렇게 먹다보니 그제야 평소에 얼마나 많은 육류와 수산물을 소비해왔는지를 알게 되었다. 맨 밥에 국, 배추김치밖에 먹을 것이 없었던 날이 많았기 때문이다. 친구들은 갑자기 바뀐 나의 식습관에 의아해 했고, 누군가 먼저 물어오면 난 채식을 해야 하는 이유를 진지하게 설명해주었다. 공장식 축산업과 수산업이 환경에, 나의 몸과 정신에, 동물에, 관련 노동자에 끼치는 악영향을 최대한 간단하게 말이다. 어느 날에는 담임 선생님까지 이유를 물어오셨고 나는 현대 육식에는 이런 문제점이 있다, 그러니까 육류 섭취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 때 선생님께서는 단백질 부족으로 인한 성장 저하를 염려하시면서 동시에 내 주장에 수긍하셨다. 중학교 시절 남은 반년을 그렇게 지내다 보니 주변 사람들과 나 자신도 채식에 익숙해져갔다. 내가 채식을 시작하게 된 과정은 이러하다. 채식을 하며 환경 문제에 전보다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막연하게 NGO에서 일하겠다는 꿈도 가지게 되었다. 채식을 하며 나는 채식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마음 속 한 가운데서 나는 말하곤 했다. '왜 저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해 주어도 바꿀 생각조차 안할까?' 나 자신 또한 우유와 계란이 어떻게 생산되는지 책으로도 많이 접하고서도 할 만큼 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맛있게 먹으면서 말이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하는 고등학교에 입학했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넘어가며 느낀 심리적 부담이나 변화에 비하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넘어가며 나는 정말 많이 변했다. 지난 1년은 내가 얼마나 정신적으로 나약한지를 계속해서 알아가고 그 과정 속에서 괴로워한 나날들이었다. 여전히 난 고기와 생선을 먹지 않았다. 그러나 이전과는 좀 달랐다.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어차피 아는 사람들도 없어졌겠다, 그럼 처음부터 고기를 안 먹는 이유를 숨겨야겠다고 생각했다. 물론 주변 사람들은 그 이유에 대해서 물어왔다. 그럴 때면 나는 그저 웃으며 고기를 원래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며 넘어갔다. 그렇게 한

학기가 흘러갔다.

여름 방학부터 나의 머릿속은 하루도 빈 적이 없었다. 모든 것이 변하고 있었고, 나 자신은 여태껏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눈 뜨면서부터 눈 감을 때까지 스스로에게 반복하는 질문이 되어버렸다. 처음에는 답이 잘 나오지 않았다. 그러다 나오기 시작한 답은 스스로에 대한 온갖 질책과 비난이었다. 그 과정을 거치며 문득 든 생각이 있었다. 채식이 여태까지 나에게게는 일종의 우월의식 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데에도 다 이유가 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먹는다라는 말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던 나에게도 변화가 생겼다. 조금만 기분이 상하면 뭘 먹기 시작했다(그래서 10kg가 쪼다. 하하하). 고기라고 예외가 아니었다. 혼자 밥을 먹을 때 고기만두를 먹는 나를 보며, 예전 같으면 받지도 않았을 육개장 속의 고기를 잔반 남기지 않는다는 핑계로 먹는 나를 보며, 매점에서 참치가 들어간 삼각 김밥을 사먹는 나를 보며 참 별 생각을 다했다. 지금 돌아보면 온 통 바보 같은 생각들 뿐 이었고, 그 바보 같은 생각들을 비웃는 또 다른 바보 같은 논리들 뿐 이었다. 쪽팔리게도 그게 가장 정확한 평가였다.

중학교 때 까지는 주변에서 채식을 하는 이유를 물어 와서 설명을 했을 때 돌아오는 반응이 모두 긍정적이었다. 고등학교에서는 달랐다. 한 친구가 시비를 걸어왔다. 나에게겐 무엇이든지 먹을 자유가 있다고. 논리적으로 나를 비판하는 친구 앞에서 나는 아무 말도 못하였다. 그냥 짜증만 날 뿐이었다. 그리고 그제 서야 비로소 알았다. 나에게 채식이란, 내가 하니까 남도 해야하는 당연한 일이었다는 것을. 그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의 설명을 듣고도 식습관을 바꾸려는 추호의 노력도 하지 않는다는 점에 화가 났고 답답했다. 이런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여태까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나는 정말 바보였다.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나에게 채식은 진정으로 무엇이었는지. 물론 여기서 내린 모든 결론들은 나의 다른 삶의 부분들과 얽혀서 좀 과장된 면도 없지 않을 것이다. 전반적으로 지난 몇 개월 동안은 내 삶에 있어

서 미처 깨닫지 못했던 자만심을 알아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채식도 이런 해석 방식에 얽혔을 것이다. 어쨌든 채식은 나에게 여태껏 해야만 하는 것이었고, 그래서 고기를 조금씩 먹으면서 굉장히 바보 같았다. 이제까지 스스로 비난했던 행동을 자신이 할 때에 느껴지는 괴상한 자괴감은 겪어 본 사람만이 알 것이다. 나의 결심이 이렇게 무너진 이유는 단 하나일 것이다. 나에게 채식은 마치 환상과 같았고 뭔가 해야만 하는 관념에 불과한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막연히 ‘채식은 좋은 것.’이라는 단순한 논리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결과적으로 채식을 실천한 것은 좋은 생각이었다고는 여기지만, 이는 결과론적인 발상이다. 나 또한 아버지께서 처음으로 채식 선언 하셨을 때 무시했었다. 운명처럼 찾아온 한 영상을 통해 마음을 먹게 된 것이고, 다른 사람들도 처음부터 바뀌는 것은 불가능하다.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일은 이 뿐이다. 최대한 채식이라는 것에 대해 익숙해지도록 하는 것. 그래서 나와 같이 운명처럼 어떠한 계기가 생겼을 때 좀 더 잘 받아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 비 채식자에 대한 왜곡된 자만심이 아니고.

최근에 나는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내 삶의 격변기를 거의 지나친 현재로서 나는 지나간 나의 과거에 조소를 날릴 수도 있으나 그 과거도 포용하기로 결심했다. 인간은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 발전한다는 식상하지만 유명한 말도 있지 않은가? 채식도 마찬가지로이다. 채식은 이제 나에게 새로운 의미를 가진다. 최근 몇 개월 간 채식에 무조건적인 반감을 가진 사람들, 수긍하지만 시작할 생각은 하지 않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그리고 그들도 나와 모두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대화를 나누면서 나는 실질적으로 채식이 좀 더 잘 알려지고 거부감 없이 많은 사람에게 시도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일로 받아드려 지는 방법에 대해 고민했다. 책을 더 찾아 읽고 영상을 찾아보며 이 모든 일의 당사자인 동물들에 대해서 특히 많은 생각을 했다. 이런 연구가 있다. 인간은 먼 곳의 아픔에는 공감할 해도 당장 내 옆에서 고통 받는 사람

에게는 무관심하고 냉정하다고 한다. 나의 채식도 그렇게 시작했다. 한 영상을 통하여. 그러나 PETA, 카라, 동물자유연대 등의 단체를 알아보고 소극적으로라도 참여하며 정말 고통받는 존재인 동물들에 대해 생각했다. 채식은 이제 더 이상 나에게 ‘좋은 것’과 같은 왜곡된 환상이 아니다. 진짜로 중요한, 바로 옆에서 고통 받는 존재에 대한 관심이 생긴 것이다. 이것이 제대로 되고 오래 가는 공감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1년간 나의 많은 것들이 변하였다. 부끄럽지만, 자신을 낮춘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야 조금씩 알아 가고 있다. 변화. 나에게 먹을 자유를 말하던 친구가 이런 말을 해주었다. 인간은 변화하는 거라고. 변화하려고 노력이라도 한다면 반드시 변화하고 오늘보다 나아질 수 있다고. 그래서 나도 내 과거에 대해 당당해지려고 한다. 많은 변화들 사이에서 채식 또한 나의 일부였다. 나는 이제 우유와 계란도 먹지 않는다. 우유와 계란을 피하려다 보니 빵이 현재로서는 좀 아쉽기도 하다. 그러나 이제는 확고한 이유를 가지고 채식을 한다. 내 말을 듣고도 실천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해 가지고 있던 유치하기 짝이 없던 생각들도 이제는 모두 버렸다. 이전 나의 친구와 채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자연스럽게 한다. 그 친구가 나와 다른 의견을 가졌다고 해서 결코 틀리지도, 그 사람이 나보다 못나지도 않다는 점을 이제야 알았다. 글로 직접 이런 이야기를 풀어내자니 매우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다. 그러나 나는 나의 이런 변화가 매우 다행스럽고 떳떳하다.

동물을 사랑하고 자연을 보호하는 것은 자기 자신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다. 채식도, 그 다른 무엇도 마찬가지이다. 서로의 의견을 존중할 때 비로소 진짜 변화가 찾아온다. 내년에 난 공장식 닭과 계란 생산 허위 광고 폭로 혹은 대규모 축산업자가 얼마나 대한민국에서 소규모 농장들을 파괴하는 지에 대한 실질적 비교에 대해 과제 연구를 한다. 그리고 지금 부터가 나의 진짜 채식, 진짜 변화의 시작이다.



너의생명
나의공감

(사)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서울시 마포구 잔다리로 122(서교동 457-5)

전화 02-3482-0999 | 팩스 02-3482-8835